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결정 위임’ 현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

A Christian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Phenomenon of “Delegating Decisions to AI” among Contemporary Users of Generative AI

박영진 (Yeongjin Park)**

ABSTRACT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delegating decisions to AI,’ which emerges as modern people use generative AI, and proposes criteria for the proper use of generative AI from a Christian theolog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it defines ‘delegating decisions to AI’ a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core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ifts from the user to the AI during AI use.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and dependence in relation to the scope of decision delegation through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pri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xt, it establishes criteria for decision delegation based on a systematic theological discussion of ‘God’s sovereignty and providence’ and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It then analyzes the questioning behavior of Saul and David, focusing on the biblical text, while also providing narrative observations of the flow of events and the changes in the characters’ attitudes,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modern people’s use of AI by analogy. Finally, it offers theological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proper use of AI, with concrete examples for individuals, churches, pastoral ministry, and theological education, and highlights responsibility and discernment in real decisions.

Key words: generative AI, delegating decisions to AI, God's sovereignty and providence,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independent judgment

* 2025년 11월 7일 접수, 2026년 3월 8일 최종수정, 3월 10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202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2025년 10월 18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침례신학대학교(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y.danielpark@gmail.com

I. 들어가는 말

2020년대로 들어서며 첨단 기술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바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며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의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1960년 대부터 개발해왔지만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2014년 GANs(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성적 적대 신경망)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인 OpenAI의 ChatGPT 서비스의 등장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반 대중들과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 시점으로 봤을 때, ChatGPT의 초기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GPT-3 모델의 정확도는 일반 상식/지식 기반 분야 기준 70~75%에 불과했다(Brown et al., 2020). 하지만 생성형 AI가 출시된 지 3년이 넘는 현시점에서, 국가 시험이나 의학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92% 이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Umehara et al., 2026). 이러한 결과가 가능해진 이유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아키텍처(native multimodal architecture) 방식의 AI 모델¹을 GPT-4o 모델부터 적용하여 기존 대비 정확성을 높이고 불완전한 데이터의 오류를 보정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이다(Akhtar, 2025). 이처럼 AI는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현대인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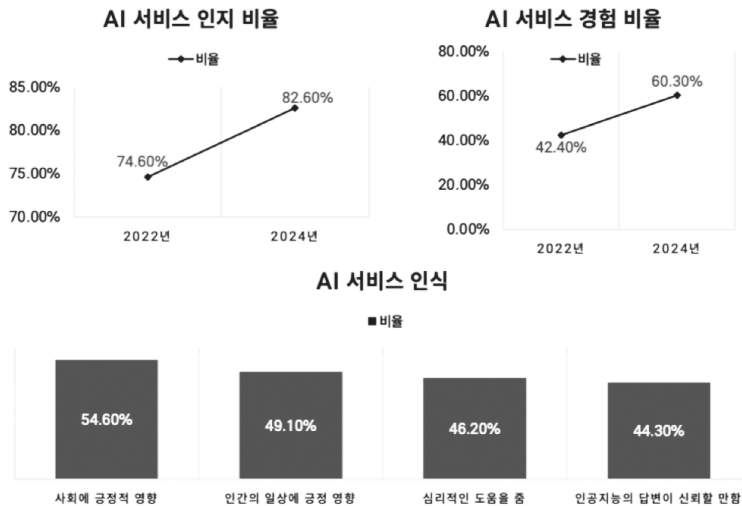


그림 1. AI 서비스의 인식 변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1)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김말희 외, 2024)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2024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를 “2024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I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74.6%에서 2024년 82.6%로 증가했으며, AI 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은 2022년 42.4%에서 2024년 60.3%로 증가했다(최문실 외, 2024).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AI 서비스를 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만 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54.6%가 정부/기업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49.1%는 AI 서비스가 사람들의 일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46.2%는 AI 서비스가 심리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했으며, 44.3%는 AI 서비스의 답변이 신뢰할 만하다고 답하기도 했다(최문실 외, 2024). 복수 응답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앞서 제시한 응답에 대한 비율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0명의 사람 중 4-5명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고 봐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I 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은 과연 어떠한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기독교 통계 조사 자료 중에 “ChatGPT에 대한 성도 인식”에 따르면, ChatGPT 서비스를 알고 있는 비율은 일반 성도가 59%, 목회자가 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일반 성도들은 자신들이 ChatGPT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목회자가 특히 설교에 Chat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76%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반면, 동일 연도 통계자료 중에 “Chat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ChatGPT의 답변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조사 기간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보다 1년 전임을 감안하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인지하는 비율이나 긍정 또는 부정의 반응이 좀 더 증가했으리라고 추정한다.

통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한민국 인구 중 절반 이상이 AI 서비스의 답변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은 AI가 보급된 현대 사회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제시된 결과물을 참고하여 자신의 지식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AI에게 의존하는 ‘결정 위임’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AI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윤리적 관점이 주류였으므로, AI에 대한 결정의 주체성을 신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흡했다. 그런데 최근 신학 관련 분야는 아니지만, 인간이 생성형 AI에게 결정 위임을 하는 사례에 대한 해외 연구가 보고되었다. Klingbeil et al., (2024)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개선할 잠재력을 가진다. 하지만 AI가 도출한 답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과잉 신뢰를 할 경우에는,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나타나며,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관점으로, ‘한국정보기술학회’에서 발표된 “AI 기술에 대한 현대인의 의존도 분석”(박상우 외, 2025)에서는, 설문 대상자의 80%가 AI의 사용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가 저하되고, 더 나아가 AI를 향한 의존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선행 연구 사례를 통해, 첨단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인간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주는 답에 의존하는 경향은 인간론적 차원에서 자유의지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신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수용의 문제를 신학적인 주제로 연결할 수 있다. 결국 생성형 AI의 사용으로 인해 드러나는 결정 위임은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 기독교 신학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본 주제와 접근 방향성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되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권면을 넘어, 결정 과정에서 핵심 주제와 책임의 이동을 결정 위임의 범주로 정리하고, 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과 적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 연구와 조직신학적 관점 및 구약성서의 본문 주해를 중심으로, 사건 전개와 인물 행동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내러티브적 관찰을 병행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를 현대인과 유비적으로 비교하여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결정 위임 현상을 검토한다. 또한 후속 실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 위임 현상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 인지’와 ‘2차 검증 여부’ 그리고 ‘AI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상태인지’와 같은 기초 항목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정 위임 현상의 범위, 곧 결정의 주체와 책임이 이동하는 현상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AI 의존성이 드러나는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AI 사용과 관련된 행동 일부 범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조직신학의 신론, 인간론 등의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고 평가한다. 이어서 성경 인물 분석에서 사울과 다윗의 사례를 분석할 때, 발생한 사건의 순서와 등장 인물의 행동 변화 그리고 화자가 의도적으로 본문에 내포한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인물 행동의 핵심이 되는 히브리어 동사의 문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주해한 후, 이를 현대인의 AI 사용과 유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학적 결론을 도출한다. 단, 유비적 분석은 성경 인물들의 행동과 현대인의 AI 사용 행위를 동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정의 주체와 책임 이동’이라는 범주 안에서 비교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과 분별 그리고 주체성에 관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에 대한 개념과 결정 위임 상태의 개념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조직신학의 신론과 인간론 등의 관점에서 결정 위임 현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평가한다. IV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질문 행위가 드러난 본문을 분석한 후에 현대인의 행동과 유비적으로 비교하며, V장에서는 앞서 전개한 논의를 종합하여 개인, 교회, 목회 그리고 신학 교육 현장에서 적용 및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II. '결정 위임'의 개념과 범위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결정 위임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그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보 탐색, 아이디어 참고 및 정리, 문서 작성 보조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 방식을 전부 결정 위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AI 의존성에 관하여 단순 '참고 수준(reference)'에서부터 '과의존(overreliance)'까지로 단계별로 정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I가 도출한 결과를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decision support)으로 사용하려는 수준과, AI가 제시한 결과를 2차 검증을 통한 재확인 없이 그대로 신뢰하는과의존(overreliance) 수준 그리고 그 외의 수준으로 구분한다(Klingbeil et al., 2024 ; Passi & Vorvoreanu, 2022 ; Zhai et al., 2024).

또한 고등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AI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AI에 대한 의존성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학생들이 AI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불투명성²이었다. 이러한 불투명성이 결론 도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결과로 '과도한 신뢰'나 '불충분한 신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정 위임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AI에게 결정 위임을 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Pitts et al., 2025).

따라서 본 논문은 'AI가 제시한 결과물의 내용을 검증하고 참고 용도로 신뢰하는 상태'를 반드시 구분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의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black box problem'이라고 설명했다. Zhai et al., (2024)도 과도한 의존을 야기하는 주요 윤리적 문제로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Pitts et al., (2025)의 관점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상황의 '결정 위임' 범위

AI 관련 선행 연구들 중 일부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결정 위임이 나타나는 범위를 참고 수준에서 과의존까지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행한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생성형 AI의 사용이 단순 참고 수준에 머무는 점도 있지만, 사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과의존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분은 모든 AI 사용을 의존성이 드러나는 동일한 범위로 간주하기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AI와 사람 사이에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 제시되어 왔다.

이를 위해, 먼저 '신뢰(trust)'라는 단어의 개념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뢰는 “다른 당사자가 신뢰자에게 중요한 특정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다른 당사자의 행동에 취약해지려는 의지”를 의미한다(Mayer et al., 199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뢰 그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갖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뢰'는 누군가가 어떤 조언이나 판단 및 결정을 했을 때, 당사자가 그것을 따르는 행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에 대한 개념은 고도화된 자동화의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룬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Lee & See(2004)는 신뢰를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특징인 상황에서 행위자(agent)가 개인의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라는 태도(attitude)”라고 정의했으며, 신뢰에는 '의존성(reliance)'이 포함되지만 신뢰와 의존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는 태도의 범위이고, 의존은 실제로 조언과 판단 등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뢰와 의존은 동의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그 이유는 신뢰가 반드시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존은 일정 수준의 신뢰를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정의하기 전, 이미 Parasuraman & Riley(1997)는 그들의 연구에서 인간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일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뢰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이 자동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오용과 남용이 결과적으로 과의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와 의존의 구분은 AI 기반 의사결정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자동화 의존에 대한 연구도 AI 기반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특히 최근 연구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AI가 제시하는 답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에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여러 자료를 근거로 2차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AI가 제시하는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살펴봤던 Klingbeil et al., (2024)의 연구에서는 특

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독립적인 상호작용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뒤로한 채 AI가 제시하는 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의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 부족으로 전문성이 낮아져 AI에 대한 과도한 신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관점이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일반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AI가 제시한 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뒤로하고 AI를 향한 의존적 신뢰가 드러났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참고 용도로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AI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로 점점 이동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논문의 연구 결과 안에서, 결정 위임의 개념이 모든 생성형 AI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AI를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는 상태, 제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강한 의존 상태 그리고 전적 위임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 중에서 강한 의존 상태와 전적 위임 상태만을 신학적인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결정 위임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적인 판단에 일정 부분을 의지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조언하는 사람이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 도덕적 책임까지도 공유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는 조언하는 사람이 도덕적 행위주체(moral agent)로서 자신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AI는 맥락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도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인격성을 가진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성을 띠는 것이 같은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 논문이 다루는 결정 위임은 이러한 인격적 관계와 책임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의 주체가 이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에 대한 강한 의존과 전적인 위임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I가 제시한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2차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둘째,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셋째, AI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특히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거나 무시한 채로 AI의 조언을 사실상 맹신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이동했다는 중대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 역시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신학적 검토는 이후 논의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및 책임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근거가 되며, 생성형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주체가 전환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을 분명히 전제한다.

2. AI 활용 상황에서 의존성이 포함된 신뢰로 나타나는 ‘결정 위임’의 문제점

앞 절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결정 위임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범위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결정 위임의 상태가 AI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활용의 형태가 아니라, 의존성이 드러나는 신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전환되는 형태이며 이러한 점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주체 전환은 기술을 단순히 도구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의 역할은 약화되고, 인간이 만들어 낸 기술이 사실상 결정의 주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정보를 검토하여 생성된 선택지들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수록,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가 점점 축소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하며 결과를 도출하기보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선택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하는 행위는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의사결정의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심각한 문제는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보통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책임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AI 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책임성에 관한 논의를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AI 개발과 활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책임 공백(responsibility gap)’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이다. AI가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책임은 사용자, 개발자 또는 AI 자체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해진다. 예컨대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형식적으로는 결정을 선택한 사용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실제 판단의 근거를 AI가 제시한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책임의 귀속이 분산되거나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Matthias(2004)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자율 로봇이나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s)³ 기반의 적응형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자율학습 시스템이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산출할 때, 그 책임을 특정 주체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3) 임의의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또는 로봇)가 스스로의 상태(state)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태-행동 평가값(value function)을 이용해 주어진 일을 성취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optimal action)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서일홍 외, 2006).

상태를 '책임 공백'으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관점을 본 논문의 맥락에 적용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상 책임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 공백의 문제는 단순히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이 해야 할 생각이나 검증 단계가 약화된다는 점과 연결된다. 사용자가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속하는 경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점 퇴색되며, 심사숙고의 과정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결과 판단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고민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주어진 답을 선택하는 행위로 전환되며, 이 상태는 결국 인간에게 판단력 약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AI 등 최신 기술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기술 윤리적인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사고 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에 그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창조되었는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고찰을 기반으로, 성경 인물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했는지를 유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현대인의 '결정 위임' 현상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본 장의 목적은 생성형 AI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정 위임 현상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인 정의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조직신학 이론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과학 기술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AI라는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이 AI에게 의존성을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교리적인 논쟁에 대입시키기보다, 이 부분을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인간의 자유의지 및 책임'이라는 조직신학적인 주제를 생성형 AI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점을 전제해왔다. 그래서 인간이 AI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AI로 대체된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기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논지는 인간이 사용하는 AI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혹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정의 핵심이 뒤바뀌는지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결정 과정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과, 결정 과정에서의 핵심을 AI에게 ‘위임’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신학적으로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행위나 사용의 빈도수에 관하여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판단을 위해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룬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고의 중심이 인간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인간은 AI가 제시한 결과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가져야 할 사고능력과 책임의식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정 위임에 관한 문제는 기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다양하게 선택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해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관점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할 때 간략하게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통된 분류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성령님에 관한 교리적 이론인 ‘성령론’을 통해 생성형 AI에게 의존하는 인간들의 방향성이 올바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전통적인 조직신학 안에서 논의되어 온 흐름의 연장선에서,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 계신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으며(출 3:14),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창 1:1).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말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오직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며(신 32:4; 마 5:48; 요일 3:20 등),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왕으로 인간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절대적인 분

이시고(시 103:19),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다(계 1:8; 21:6; 22:13).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름을 말한다.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언약이므로 절대적인 조건은 없으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안병천, 2024). 이러한 언약적 관계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전제하며, 그 과정을 AI에게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부여된 책임을 방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끄시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단순히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도록 하신다(갈 5:18).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마음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섭리 교리 안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도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피조물이 실행하는 모든 행동에 협력하시며,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므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과 협력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각각 피조물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조물과 관계를 맺어서서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성취되도록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심을 의미한다(Grudem, 박세혁 역, 2024a).

칼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행위 등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시 33:13; 104:27~30; 행 17:28; 히 11:3 등). 칼뱅에 따르면 인간이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건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

4) 여기서 속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히 1:3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라는 헬라이어 ‘φέρων(φέρω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분사형)’로부터 비롯되었다. φέρω는 “어떤 것을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것을 의도성을 띤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보유하신다는 말이다(Grudem, 박세혁 역, 2024a).

이며, 그 과정에서 피조물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Calvin, Beveridge 역, 1997). 이오갑(2006)도 칼뱅의 섭리론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라는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수단인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섭리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이러한 수단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생성형 AI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AI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이는 도구에게 판단이나 책임을 위임하는 것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기독교 전통 교리를 기반으로 한 신앙의 고백과 대립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보다 AI가 제시한 결론에 더욱 의지하여 그것을 의존하는 태도는 영적 분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삶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말씀을 오늘날 최첨단 기술 환경에 노출된 현 시대에 적용할 때,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신뢰해야 할 대상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편의성을 위해 AI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AI를 인간의 보조 도구나 협업 도구로 사용했을 때, 인간의 의사결정 성과가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Bansal et al., 2021 ; Dellermann et al., 2019). 이처럼 AI를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술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AI에게 위임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행동은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볼 때, 생성형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태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관해 논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유지 및 책임'의 관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원래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그가 설명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의지는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선택이다. 책임의 범위는 도덕적 요소와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고,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익만, 2010 ; 김황훈, 2002 ; 백수홍, 2012).

자유지와 책임에 관한 논의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도 교회사의 흐름 안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노예의지(servum arbitrium)'로 정의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놓인 수동적인 대상으로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자유롭고 자족적인 의지가 없으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은재, 2011). 이러한 루터의 관점은 인간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했기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개념에 동의하여 인간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한주예, 2021). 칼뱅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죄에 속박되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자발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에 인간은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Calvin, Beveridge 역, 1997). 이경직(2016)은 이러한 칼뱅의 자유지론을 연구하면서, 칼뱅이 인간의 건전한 이성 과 의지의 결합으로 인해 선과 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만약 인간이 선을 따르는 경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루뎀도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물으신다"라고 서술했다(Grudem, 박세혁 역, 2024a).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성경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의 선택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자유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타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의 전제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벗어난 제한 없는 완전한 자율성도 아니며,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마치

못처럼 명령으로만 제어하시는 결정론적인 의미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의지 논쟁 시, 신경과학계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연구는 ‘리벳 실험(Libet experiment)’이다. 이 실험에서는 인간의 의식적 결정 과정 이전에 뇌에서 준비전위(readiness potential)가 관찰되었다는 점을 보고하여, 자유의지 논쟁에서 결정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경보(2023)는 신경과학에서의 발견을 수용하되, 이를 환원론적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으며, 과학을 통해 신학적인 이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인간의 뇌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을 위해 변화할 수 있다는 ‘뇌가소성(brain plasticity)’에 관한 논의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의 행위를 전부 실험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환원론적 결정론자들의 해석을 일반화하려는 논리에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 이해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인간이 타락한 이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남겨진 죄의 흔적 때문에 악을 택할 수도 있기에, 인간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계속 요구된다(롬 7:15-23 ; Grudem, 박세혁 역, 2024a ; Grudem, 박세혁 역, 2024b).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하여 생각할 때,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효율성을 위해 AI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의 예후 예측 그리고 신약 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되어 의료 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보조하며, 교육 분야에서도 AI가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사의 결정을 보조한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Bansal et al., 2021 ; Dellermann et al., 2019).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성형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결정 자체를 대신하도록 위임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간의 결정이 자유의지 안에서 판단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AI가 도출한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결정 과정에서 AI가

결정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형식상으로 인간이 결정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정 위임 현상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성경적인 관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술 도구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AI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보조로 활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중요한 판단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성경 인물인 사울과 다윗의 '질문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유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V. 성경 인물들과 현대인의 유비적 분석: 사울과 다윗의 질문 행위를 중심으로

앞서 생성형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문제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 인물과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성경 인물인 사울과 다윗의 사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왕정 시대 초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에서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왕정 통치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왕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국가의 중대한 결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언약적인 의무를 지녔다(신 17:14-20). 따라서 사울과 다윗의 질문 행위는 개인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둔 통치 행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두 인물의 질문 행위로부터 드러나는 '신뢰의 방향'과 '책임의 주체'라는 두 가지 주제 안에서 현대인의 AI 사용과 유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울과 다윗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질문의 대상이 달랐으며 그 결과도 중요한 차이가 분명 있었다. 따라서 이 두 인물의 질문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나 고민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질문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단, 본 장에서 사울이 주술에 대하여 의존성을 보였다든 점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현대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AI에 대한 의존성과 나란히 비교하여 다룬다고 해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곧 주술적인 행위라는 동일한 의미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아님을 먼저 제시한다. 성경은 신접자나 무당이나 요술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이며(신 18:9-12),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상숭배의 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주술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명백한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사울의 행동을 현대인이 AI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 유비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단순히 ‘주술하는 것과 AI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이다’라는 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정하는 순간에 인간이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지 혹은 회피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주술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현 시대에 인간이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판단의 주체가 이동되고, 더 나아가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신학적 분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사울에 대한 유비적 분석은 ‘AI 사용은 주술을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중요한 판단 과정에서 신뢰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신뢰의 방향성과 스스로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제한적 비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비교는 다윗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본 장은 사울과 다윗의 질문 행위를 단순히 교훈적인 내용만 담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과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1. 사울의 사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 국가를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는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

으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신 17:15).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신 17:16). 또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으며(신 17:17), 율법책을 평생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셨다(신 17:18-19). 이처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여주어 하나님 뜻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원인이 되는 부분은 사무엘상 13장이다. 본문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등장한다(삼상 13:9).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삼상 13:13-14).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답을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할지를 질문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삼상 14:37). 이때 성경의 원어는 'לָשׂ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לָשׂא'이라는 단어는 주로 '질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좀 더 자세한 의미는 '조언을 얻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하거나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대하는 행위'를 말한다(Brannan, 2020).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할 때는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근접 원인인 '피째 고기를 먹은 사건'과 '사울의 금식 맹세 지시'만을 근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드러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사건과 14장의 사울의 백성들을 향한 금식 맹세 지시를 함께 봐야 한다.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강행했던 사건은(삼상 13:9-12),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태도라기보다 그의 불안한 감정을 통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פָּסַחְתָּ'인데, 이것은 פָּסַח의 히트파엘형으로 '나는 억지로 ~하다'라는 재귀적인 뜻을 나타내며, 내포된 뜻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어떠한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SV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을 "So I forced myself..."(삼상 13:12b)라고 히브리어의 뜻과 비슷하게 번역했다는 점에서, 사울이 억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사울이 억지로 제사를 드린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와의 대치 속에서 이레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불안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부드러운 기분에 두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방의 중

교적 행위와 유사한 태도에 해당하기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울의 잘못이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제의적 위반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권 체제에서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스스로 전쟁을 결정함으로써 원칙을 어겼고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Klein, 김정열 역, 2014).

그 결과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사무엘로부터 그의 왕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삼상 13:13-14)을 듣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14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행동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고(삼상 14:37), 이에 사울이 하나님께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삼상 14:41)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며 마치 억지로 답을 얻어내려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Woodhouse, 2008). 둘째로 사울이 하나님께 ‘죄인’이 누구인지 여쭙었던 상황에서 원어의 표현은 명령형에 가까운 강한 요청의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Brannan, 2020), 사울의 질문 행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로부터 나온 표현이었으며, 동시에 그가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금식 맹세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Evans, 2004).⁵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sumura, 2007).

이어 사무엘상 28장에서도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삼상 28:6)라는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역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통로를 꿈, 우림, 선지자로 자세히 언급했다는 점이다(창 20, 31; 민 12:6; 왕상 3:5 등).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사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는데(삼상 28:7-8), 이때 한글 번역으로 ‘묻는다’는 이 어휘를 원어에서는 ‘שָׁאַל’이라고 표현했다. ‘שָׁאַל’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참고했을 때, 주로 ‘탐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묻다,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삿

5)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 사울이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삼상 14:44)라고 선언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잘못된 맹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들의 목숨마저 희생시키려 했기 때문이다(김구원, 2014).

6:29; 대상 28:8-9; 전 1:13; 사 1:17; 시 119:45 등). 이 단어의 용례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탐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주 면밀히 탐구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상세하게 질문하고 답을 기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집요하게 원하는 것을 얻거나 도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청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욥 5:8; 렘 10:21; 29:13; 애 3:25; 호 10:12; 암 5:4, 6 참고)(Brannan, 2020 ; Tsumura, 2007).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성경을 보면 이 'שָׁאַף'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공의나 선 또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거나 구할 때 사용된 사례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창 25:22; 출 18:15; 신 4:29; 삼상 9:9; 왕상 22:5; 왕하 22:13; 대상 10:14; 시 105:4; 119:10; 사 55:6; 호 10:12; 암 5:4 등 참고). 이를 통해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Tsumura, 2007). 그런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을 때 성경은 'שָׁאַף'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사울이 곧바로 금지된 점을 치며 'שָׁאַף'(탐구)했을 때, 그가 신뢰하는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신뢰해야 할 대상을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분이 금지하신 주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신 17:18-19),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그분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신 18:14) 주술적인 방법을 택했다. 또한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로 이해할 수 있다(김구원, 2014 ; Kaminski, 이대은 역, 2016 ; Henry, 정충하 역, 2009). 이러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그의 왕권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대상 10:13-14a)라고 그가 죽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한다. 따라서 사울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인간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해보았을 때, AI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주술적인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AI는 인간이 설계하고 만들어 낸 기술이라는 점에서 주술과는 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결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AI가 제시한 결과를 따르는 행위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된다면, 선택의 주체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영적 분별력 등이 약화될 수 있다. 따

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성형 AI를 참고 용도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되, 모든 결정의 중심은 자신에게 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2. 다윗의 사례

앞서 살펴본 사울의 사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한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시며,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생성형 AI 사용에 적용했을 때, 참고 용도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임을 제시했다. 이제 다윗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결정했으며, 그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성경은 다윗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삼상 16:11)라고 표현했다. 막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יָדָוָד’이며, 이 단어는 ‘낮은 지위의 사람’이나 ‘하찮은’ 것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처음 등장했을 때의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길 원했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상황에서 블레셋이 그일라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블레셋을 공격할 것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두 번 구했다(삼상 23:2, 4).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전 하나님께 질문할 때 쓰였던 것과 동일한 단어인 ‘לָשֹׁאֵל’이다. 사무엘상 23장 이전까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장면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삼상 16:13),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본문에서 서술된 다윗의 행동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보다는 그가 직면한 도피 상황에 관한 것을 좀 더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그일라 족속을 구원했던 사건 이전에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고(삼상 22:1-2), 지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심사숙고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엘상 23장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리더십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여 상황을 판단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김구원, 2014).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질문하는 장면에서 **לְפָנָיו** 앞에 히브리어 전치사 **לְ**가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전치사 **לְ**의 뜻은 '~에게(to)', '~를 향하여(toward)'라는 의미를 지니는데(Ross, 정길호·최명덕 역, 2007), 직역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다'라는 뜻이 된다. 이는 다윗의 질문 행위가 단순한 정보 수집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신뢰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치사 **לְ**의 결합은 단순히 방향과 대상에 대한 표시를 넘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드러냈다. 다윗이 동일한 질문을 두 번 했던 것은 그가 여호와와의 뜻에 확신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Tsumura, 2007).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던 행위는 결정과 책임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그 결과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바라볼 수 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이 한 성읍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먼저 그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질문했다(삼하 2:1).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유일한 왕이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 문화에서 왕의 사위는 왕위 계승을 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김구원, 2019).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를 생성형 AI 사용 관점과 연결시켰을 때, 인간은 보통 생성형 AI를 자신의 도구로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문제는 도구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스스로 심사숙고하지 못해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상태에 이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목적을 완전한 의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고 용도나 보조 수단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이 유비적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이 판단할 때,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해야 하는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AI가 주는 정보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을 요구한다. 이에 이러한 적용 부분을 결론에서 성도들의 삶과 목회 현장 그리고 신학 교육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정 위임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의 타당성을 논하기 위해, 조직신학적 관점과 성경 인물과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현대인을 유비적 관점을 토대로 고찰했다. 또한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주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본 논문이 강조한 핵심은 ‘AI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사용할 때 결정의 핵심 주체와 책임이 이동하는 현상에 관한 것과 신뢰 대상에 관한 문제였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생성형 AI를 단지 인간의 삶을 보조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술은 대부분 인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기술을 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어 인간이 더욱 다양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넘어, AI에 대한 의존 또는 결정 위임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AI 사용은 효율과 편의성을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되, 결정의 핵심 주체가 이동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계는 단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AI를 사용자의 검색 도구인지, 사고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인지, 결정 위임을 할 정도로 신뢰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AI가 제시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이는 AI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출처는 명확한지, 결과가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AI

가 제시한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AI에게 다시 반문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통상적으로 AI가 가장 효율적이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라고 부르는데, 일반인들이 모두 전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기술을 갖추는 것은 없겠지만,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AI를 다루는 것을 지양하거나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개인을 넘어 집단 내에서 선택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AI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 검색 용도나 도출한 결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할 2차 검증 등의 형태로 제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실천적 제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결정 위임 판단 체크리스트'처럼 사용자가 자신의 AI 사용 실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경험적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실증 연구를 통해 이 진단표에서 제시한 검증 항목의 타당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교회·목회 현장 및 신학 교육에서의 지침으로,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및 책임이라는 신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한 규범적인 제언이다. 전자가 AI를 사용하는 인간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라면, 후자는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1표. 결정 위임 판단 체크리스트 예시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1	사용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고 핵심 키워드를 스스로 구상했는가?					
2	사용자는 AI가 제안한 여러 결과물에 대하여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가?					
3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2차 검증(직접 검색, 관련 공문서 및 논문 참고 등)을 거치는가?					
4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코드 등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최소 60% 이상 수정하는가?					

5	사용자는 항상 '시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제시하는 결과가 중립적인지 검토하여 재질문하는가?					
6	만약 AI가 제시한 정답이 정확한 정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7	만약 사용자가 잘못 생성된 AI 결과물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가?					
8	사용자는 AI를 사용하면서 프롬프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도메인 지식을 쌓고 있는가?					
9	사용자는 AI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0	사용자는 AI의 한계를 인식하며 중요한 일(삶의 방향성, 진로 선택 등)을 결정할 때, 직접 고민하거나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가?					

총 점수는 체크된 점수의 x2로 계산한다(100점 만점). 80점 이상은 '양호', 60~79점은 '주의', 59점 이하는 '위험'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결정 위임에 대한 판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 위임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해볼 것을 제안한다.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둘째,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선택하지 않고, 2차 검증을 하는가?' 셋째, '사용자는 AI가 없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점수 구간별 상태를 나누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은 결정 위임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의 예시이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선행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이 AI를 사용할 때 사고 능력 저하 현상과 의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AI 기반 서비스나 하드웨어 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광고에서 사용자가 웃을 고르거나 약속 장소를 결정할 때 AI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는 단순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넘어, 마치 사용자가 AI의 결정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이 최적의 선택이 된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AI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현대인들은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AI가 제시한 결과를 믿고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만

약 AI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여 AGI(강인공지능)가 보급된다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AI를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AI가 생성해낸 다양한 결과물을 어떻게 분별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올바른 AI 사용을 위해 교회 및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도들의 AI 사용을 무조건 막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존성에 대한 경고가 섞인 권면을 하고, 올바른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세워 성경적 가치관 내에서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Conrad, 2025).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도 되는 영역(행정, 자료 정리, 디자인, 보조 자료 생성 등)과 지양해야 하는 영역(설교, 양육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교회 안에서 결정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할 때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를 사용하여 설교 문장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며, 스스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보조 자료를 생성하거나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I를 사용하기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의논함으로 질서 있게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전 14:40). 만약 AI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고 자료로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AI를 사용하기 위해 신학 교육에서는 어떻게 분별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디지털 시대에서의 신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검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과도하게 AI를 의지한 과제 수행이나 글쓰기 등으로 학업 수행능력을 잃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출처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하여, 어떤 자료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경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Papakostas, 2025).

정리하자면 디지털 시대에서의 AI를 이해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만든 첨단 기술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AI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로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다. 첨단 기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AI 사용법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경열 역 (2014). **사무엘상 : WBC 성경주석**. Klein, R. W. (2004). *Word Biblical Commentary 10*. 솔로몬.
- 김구원 (2014). **사무엘상 -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홍성사.
- 김구원 (2019). **사무엘하 -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홍성사.
- 김말희·허태욱·이일우 (2024).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술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v.2136, 2-16.
- 김익만 (2010).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 연구: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항훈 (2002).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 『자유의지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넘버즈 215호: 챗GPT에 대한 성도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넘버즈 186호: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목회데이터연구소.
- 박상우·한동균·김채원·손경락·서동섭·박세진 (2025). AI 기술에 대한 현대인의 의존도 분석.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20(1), 1037-1040.
- 박세혁 역 (2024a). **조직신학 1권**. Grudem, W. A. (2020). *Systematic Theology*, (2nd ed.):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복있는사람.
- 박세혁 역 (2024b). **조직신학 2권**. Grudem, W. A. (2020). *Systematic Theology*, (2nd ed.):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복있는사람.
- 백수홍 (2012).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이해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서일홍·이상형·이상훈·권우영 (2006).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로봇과 인간**, 3(4), 5-14.
- 안병천 (2024). 존 오웬의 언약신학: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해진 인간의 책임. **한국교회사학회지**, (60), 187-213.
- 이경직 (2016).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자유의지론. **생명과 말씀**, 15, 35-68.
- 이대은 역 (2016). **구약을 읽다**. Kaminski, C. M. (2012). *Casket Empty: Old Testament Study Guide: God's Plan of Redemption Through History*. 죠이북스.
- 이오갑 (2006). 칼빈의 섭리론. **한국조직신학논총**, 16, 9-36.
- 이은재 (2011).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 **신학과세계**, 72, 150-171.
- 전경보 (2023). 과학시대의 자유의지에 관한 신학적 이해. **장신논단**, 55(5), 211-237.

-
- 정길호·최명덕 역 (2007). **로스 성서히브리어**. Ross, A. P. (2001). *Introducing Biblical Hebrew*. 미스바.
- 정충하 역 (2009). **사무엘상+하: 매튜 헨리 주석**. Henry, M. (1973). *Matthew Henry's Commentary Volume 2*. CH북스(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최문실·정기호·최형인 (2024). **202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주예 (2021). 마르틴 루터의 '노예의지론' 연구: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32, 317-343.
- Akhtar, S. (2025). Multi-modal Generative AI Models: Architecture, Benefits, Application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Scien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377-382.
- Bansal, G., Wu, T. S., Zhou, J., Fok, R., Nushi, B., Kamar, E., Ribeiro, M. & Weld, D. S. (2021). Does the Whole Exceed its Parts? The Effect of AI Explanations on Complementary Team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2021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16.
- Brannan, R. (2020). *Lexham Research Lexicon of the Hebrew Bible*. Lexham Press.
- Brown, T., Mann, B., Ryder, N., Subbiah, M., Kaplan, J. D., Dhariwal, P., Neelakantan, A., Shyam, P., Sastry, G., Askell, A., Agarwal, S., Herbert-Voss, A., Krueger, G., Henighan, T., Child, R., Ramesh, A., Ziegler, D., Wu, J., Winter, C., Hesse, C., Chen, M., Sigler, E., Litwin, M., Gray, S., Chess, B., Clark, J., Berner, C., McCandlish, S., Radford, A., Sutskever, I. & Amodei, D. (2020).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877-1901.
- Calvin, J. (1997).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Beveridge, H. Logos Bible Software.
- Conrad, P. G. (2025).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ristian Ministr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rough the Lens of Scientific Exploration and Technology. *Religions*, 16(9), 1092.
- Dellermann, D., Ebel, P.A., Söllner, M. & Leimeister, J. M. (2019). Hybrid Intelligence.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61, 637-643.
- Evans, M. J. (2004). The Message of Samuel: Personalities, Potential, Politics and Power. in Motyer, A. & Tidball, D. (Ed.) (2004). *The Bible Speaks Today*. Inter-Varsity Press.
- Klingbeil, A., Grutzner, C. & Schreck, P. (2024). Trust and reliance on AI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xtent and costs of overreliance on AI.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60, 108352.

- Lee, J. D. & See, K. A. (2004). Trust in automation: designing for appropriate reliance. *Human factors*, 46(1), 50-80.
- Matthias, A. (2004). The responsibility gap: Ascribing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of learning automata.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6, 175-183.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Papakostas, C. (2025).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ligious Education: Ethical, Pedagog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Religions*, 16(5), 563.
- Parasuraman, R. & Riley, V. (1997). Humans and automation: Use, misuse, disuse, abuse. *Human Factors*, 39(2), 230-253.
- Passi, S. & Vorvoreanu, M. (2022). *Overreliance on AI: Literature review*. Microsoft Research.
- Pitts, G., Rani, N., Mildort, W. & Cook, E. M. (2025). Students' Reliance on AI in Higher Education: Identifying Contributing Factors. *HCI International 2025 - Late Breaking Papers*. 86-97.
- Tsumura, D. (2007).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m. B. Eerdmans.
- Umehara, K., Ota, J., Nishii, T., Kishimoto, R. & Ishida, T. (2026). Benchmarking GPT-5 performance and repeatability on the Japanese National Examination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over the past decade (2016-2025).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5, 100064.
- Woodhouse, J. (2008). *1 Samuel: Looking for a leader*. Crossway Books.
- Zhai, C., Wibowo, S. & Li, L. D. (2024).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ing Environments*, 11(1), 28.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결정 위임’ 현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

A Christian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Phenomenon of “Delegating Decisions to AI” among Contemporary Users of Generative AI

박영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현대인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정 위임’ 현상을 문제로 제기하고, 기독교 신학 관점에서 올바르게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AI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정의 핵심 주체와 책임이 사용자로부터 AI에게로 이동하는 현상을 ‘결정 위임’으로 규정하고, 국내 통계 자료와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와 의존의 특성을 결정 위임 범위와 연결하여 검토한다. 이어 조직신학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자유지 및 책임’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결정 위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뒤, 사울과 다윗의 질문 행위를 성경 본문 주해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태도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적 관찰을 병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AI 사용과 유비적으로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AI 사용에 관하여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제언을 개인, 교회, 목회, 신학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제시한다.

주제어: 생성형 AI, 결정 위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유 의지와 책임, 주체적 판단능력